

첫 무슬림 뉴욕시장 나오나...美 4일 선거 관심

인도계 맘다니 민주당 후보

쿠오모 前주지사 10%P대 앞서

뉴저지·버지니아 공화·민주 격돌

트럼프 당선 1년 민심 가늠자

오는 4일(현지시간) 미국 각지에서 치러지는 주지사, 시장 등 선거를 앞두고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에서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선출될지를 두고 전 미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저지·버지니아주의 주지사 등 다수의 선출직 지역 수장도 가릴질 예정이어서 집권 1년 차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한 민심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국 선거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뉴욕시는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34) 민주당 후보와 뉴욕주 지사를 지낸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67) 후보가 맞붙고 있다.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 후보는 지난 6월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인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미 정치권 안팎에 파장을 일으켰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 후보는 고블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어 돌풍을 몰고 왔다.

그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민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 등이 속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에 소속돼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당내 경선에 패배했던 쿠오모 후보가 무소속으로 본선에 출마하며 막판까지 추격전을 펼치고 있지만, 맘다니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대세를 되돌리기엔 부족한 분위기다.

가장 최근인 10월 24~28일 실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맘다니 후보는 쿠오모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16%포인트 벌리고 선두를 유지했다.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가 현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미국 민주당 내에서 기성 주류 격인 중도 진영과 진보 진영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당내 비주류인 진보 진영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미 민주당 전략가인 브래드 배넌은 최근 더일 기고문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2026년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관통하는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저지주와 버지니아주에서 주지사를 새로 선출한다.

뉴저지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민주당 후보인 마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인 잭 치터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과 오차범위 내 박빙 우위를 보이며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지사 후보로 이번이 3번째 도전인 치터렐리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상대로 투표를 호소하며 막판 추격전을 펼치고 있다. 셰릴 후보는 그런 치터렐리 후보를 ‘트랜트(뉴저지주 주도)의 트럼프’라고 공격하고 있다.

버지니아주에선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민주당 후보 애비게일 스펠버거 전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인 윈섬 얼-시아어 부지사를 최근 여론조사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다.

퇴임 후 대외적인 발언이나 활동을 자제했던 민주당 출신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 캠페인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서 이번 선거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심판임을 강조하며 한 표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맘다니 뉴욕시장 후보에게도 전화해 그를 격려했다고 NYT

는 보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맘다니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선거 캠페인이 인상적”이라고 격려하며 선거 승리 시 자신이 조언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주류에 영향력을 지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맘다니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하진 않았지만,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격려 전화를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달 25일 사전투표를 시작해 일요일인 2일 사전투표를 마감했다.

뉴욕시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2일까지 총 73만5천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비공식 집계됐다.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시장 선거에는 사전투표에 약 35만명이 참여한 바 있다. /연합뉴스

마약 카르텔 맞선 멕시코 시장

광장 공개 행사 중 충격 받고 숨져

지역 농민 갈취를 일삼아 온 마약 카르텔에 맞선 멕시코의 한 시장이 광장에서 열린 공개 행사 도중 충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멕시코 미초아칸주(州) 우우아판시(市)의 카를로스 만소 시장은 전날 광장에서 열린 ‘망자의 날’ 행사 도중 충격을 받았다.

만소 시장은 수차례 충격을 받은 뒤 사망했다. 범인은 치안 당국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고 범행과 관련된 용의자 2명은 체포됐다.

우우아판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아보카도를 생산하는 멕시코 농업의 허브 지역이다.

이 지역의 범죄 조직은 아보카도·라임 재배 농가를 상대로 갈취를 일삼으며 마약 범죄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소 시장은 최근 수개월 동안 지역 범죄집단의 싸움에 나서며 연방 정부의 지원을 공개 요청해 왔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법원 관세판결, 패배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

“패배시 국가안보 엄청난 피해

다른 국가와 경쟁에서 무방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일 자신이 추진해 온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2일(현지시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

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富)와 국가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중지는 내쬌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불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앞서 밝혔으나, 이날 “수요일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 서도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고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게,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는데,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상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일본 쌀값 안 떨어지는데…

이시바 내각 증산 방침 철회

다카이치 내각 감산 선회

일본에서 예년의 두 배 수준까지 오른 쌀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지난 8월 초순 이시바 시게루 전 정권이 정한 쌀 증산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31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내년 쌀 생산량 목표표를 올해보다 약 37만t 적은 711만t으로 제시했다.

농림수산성 측은 “수요에 따른 생산량 조정으로 감산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바뀐 방침에 일부 농가와 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0~26일 전국 슈퍼에서 판매된 쌀 5kg 평균 소매가는 4천208엔(약 3만9천원)으로, 8주 연속 4천엔대를 기록했다. 특히 햅쌀은 5kg이 5천엔(약 4만6천원) 전후에 팔리고 있다.

농가 경영 안정을 중시하는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은 지난달 하순 취임 기자회견에서 쌀값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쌀값이 오를 경우 ‘쌀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방위상으로 보직을 바꾼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이 정부 비축미를 적극적으로 방출하며 쌀값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시바 정권은 쌀값 급등에 대응해 50여년간 유지해 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접고 증산으로 공식 전환한다는 방침도 정한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쌀값 급등과 농정’을 다룬 사설에서 “옛 정책을 고집하는 것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안심을 얻을 수 없다”며 스즈키 농림수산상이 사실상 쌀 생산 억제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레바논에

헤즈볼라 무장해제 촉구

이스라엘은 2일(현지시간) 레바논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무장해제하지 못하면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헤즈볼라가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레바논이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휴전 조건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레바논이 새로운 전선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필요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성명에서 “헤즈볼라는 불안정하고 있고 레바논 대통령은 시간을 끌고 있다”며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무장해제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축출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소속 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가자전쟁을 계기로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1년 이상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근거지가 있는 레바논 남부에 군 주둔을 유지하고 간헐적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m ²]	용도	강제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	------	-----------------------------------	----	----------------------------	----

[대지/임야/전답]

2025타경 455	1	북구 신동동 479-3 2112㎡ 제1외의 소나무등1식 [정확한경계측량요.연경계번지선상매각제외소 유관계미상조림식남동창고,실외기,냉각기해제 민산태로적제,농지취득자격증명요,향후원상회 복원경발해정기능성있음[사실조치희희서참조]	답	2,970,128,000 2,970,128,000	전[수목식재]이용 중,지상소재제외의 수목[이팝나무,단 풍나무,소나무,중 국단풍등]매각포함
		임양곡 가시문학면 민월리 663 420㎡ [현황목답]	답	82,686,000 82,686,000	일괄매각,농지취득 자격증명요,목록4, 5명지
2025타경 32479	1	동소 666 311㎡ 동소 664-2 1484㎡	답		
		임양곡 가시문학면 민월리 671 754㎡ [현황목답]	답	71,321,000 71,321,000	일괄매각,농지취득 자격증명요
2025타경 32538	1	동소 670 1293㎡ [목답및일부도로]	답	321,328,000 321,328,000	현황나대지
		나주시 및가림동 155-4 286.9㎡	대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4타경 88151	1	북구 양산제로105, 1층 109호 61.24㎡	상가,오피 스텔등	355,000,000 355,000,000	
		북구 양산제로105, 1층 110호 50.7㎡	상가,오피 스텔등	294,000,000 294,000,000	

[아파트]

2024타경 79478	1	북구 서암대로66, 2층 12층 1202호 59.37㎡ [임 차인확정일자보다빠른교부전자광주세무서 3,548,720원,아산세무서18,120원,화순군78,050 원,광주서구59,890원있고,경매진행상채납금[합 계3,704,780원]가산세,가산금,연체금늘수있음]	아파트	85,000,000 85,000,000	대항력있는임차인 있음,전세자기피해 자법제20조상전세 사기피해자우선대 수권있음
-----------------	---	---	-----	--------------------------	--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m ²]	용도	강제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5타경 32124	1	북구 설죽로585, 제104동 제14층 제1401호 96.87㎡	아파트	325,000,000 325,000,000	
		남구 회재로1186번길52, 제102동 제11층 제1106호 84.98㎡	아파트	152,000,000 152,000,000	대항력있는임차인 있음
2025타경 32413	2	서구 상무버들로15, 206동 10층 1001호 [유천 동,상무버들마을2주공아파트] 59.97㎡	아파트	177,000,000 177,000,000	대항력있는임차인 있음
		영광군 흥동읍 상하길91, 제101동 제4층 제406호 [청미래아파트] 66.89㎡	아파트	47,000,000 47,000,000	대항력있는임차인 있음
		남구 봉선로91, 101동 15층 1503호 [봉선동,라 인아파트] 84.70㎡	아파트	251,000,000 251,000,000	
2025타경 32508	1	북구 천변우로79번길25, 204동 205호 [임동,한 국아메리칸2차] 107.6685㎡	아파트	426,000,000 426,000,000	
		서구 백석길22-3, 제104동 제1층 제1103호 [마복동,상무자이아파트] 210.8392㎡	아파트	1,084,000,000 1,084,000,000	2025타경33642 [중복]
2025타경 32647	1	나주시 남평읍 강변1길21-31, 102동 5층502호 [나 주남평강변도시아파트내리버시티1차] 72.992㎡	아파트	209,000,000 209,000,000	
		나주시 그린로276, 제103동 제7층 제702호 [빛 가람동,예도예술아파트] 84.96㎡	아파트	229,000,000 229,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25타경 32387	1	곡성군 옥과면 옥곡리 484 478㎡	대	177,467,100 177,467,100	일괄매각,제외외건 물매각포함
		곡성군 옥과면 물사길 26-27 1층74.15㎡ 2층 20.8㎡ 제외외 창고등92.6㎡	단독주택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된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 매각기일 : 2025. 11. 18 [화] 10:00
- 매각결정기일 : 2025. 11. 25 [8] 16:00
-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 매각방법
- 입찰방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등 을 기재하고 본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지가할수표 또는

-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계약계를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와 최저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와 최저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저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된다.
-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회고의 기일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 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해당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매각결정기일과 지정된 날의 3월경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들 납부하면 대금납부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허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전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 는 등적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적세영수필증확인 및 등적세영수필증처리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재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있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정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된면적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망자등특수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인등에게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반인들의 열람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 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방정에 나오지 않은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인 신분증상 도장등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입찰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 하고 하는 사람은 인관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토지이동계확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는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과도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지급신청이나 손해 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상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영복